

‘12년 수도권 철도건설 2조 2,000억원 편성

- 지속적인 철도투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교통수단인 철도 중심의 녹색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2012년도 사업비를 2011년(1조 9,000억원)대비 13.8% 증가한 2조 2,000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등 관내 크고작은 25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2년 사업비를 2조 2,394억원으로 편성(정부안)한 수도권본부는 서울·경기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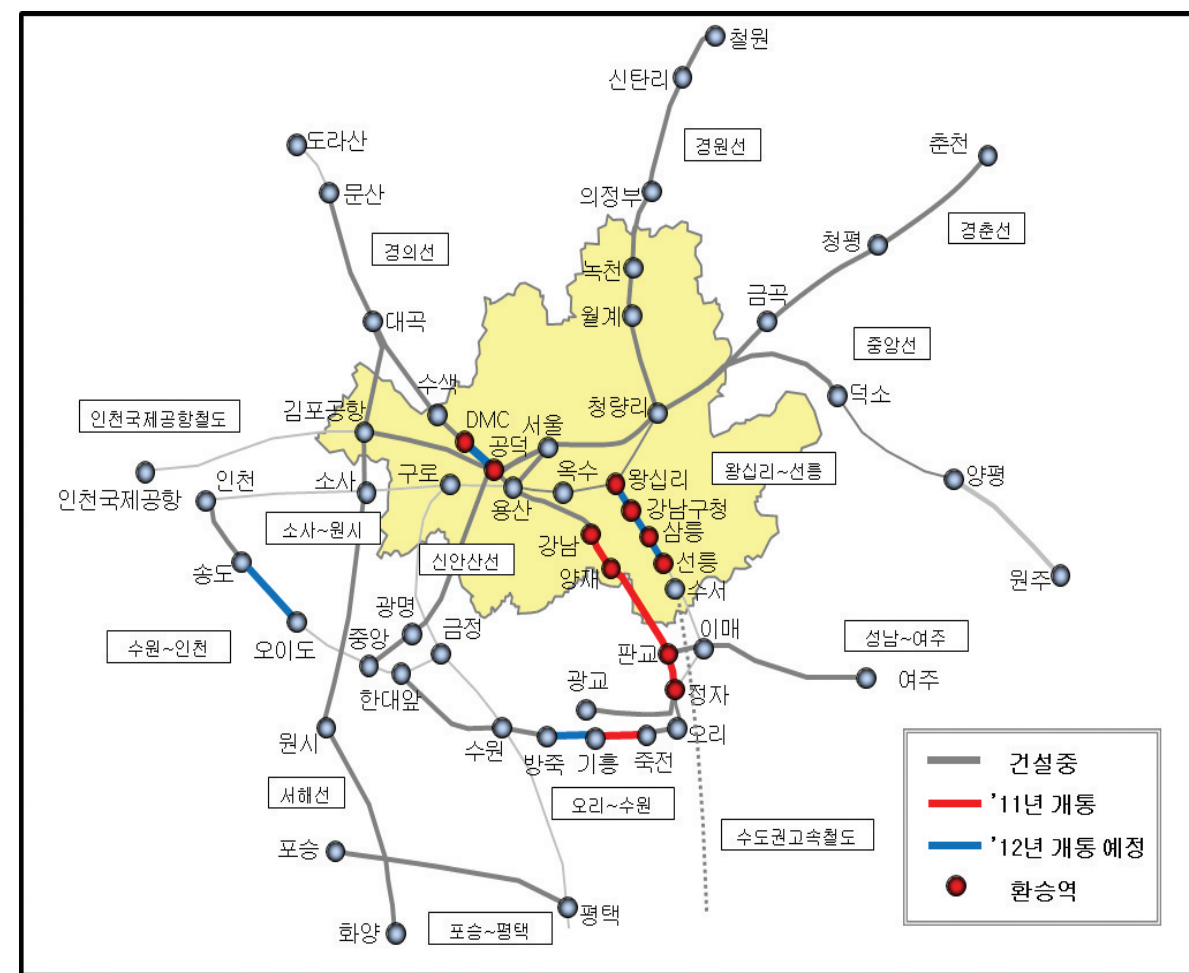
이러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약 4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4만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등 경기부양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생산유발효과 (2.13억원/1억원)	고용창출효과 (17.1명/10억원)	비 고
2012년 효과	4조 7,699억원	4만 981명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유발효과(’09기준)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유발계수(’08기준)

2012년도 수도권지역 철도망 확충 계획으로는 수도권 고속철도사업, 일반철도 성남~여주복선전철 외 5개사업, 광역철도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8개사업 등 총 25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고속철도사업은 금년 착공을 완료하고 ‘12년도

에는 용지매수 및 공사추진을 활발히 시행하여 2014년 적기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 중 오이도~송도(13.1km)구간은 2012년 6월경,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사업은 ‘12. 10월경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중 기흥~방죽(7.7km)구간과 경의선복선전철 사업중 공덕~DMC(6.2km) 구간은 2012년 12월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권 『철도건설 르네상스』 시대 개막

- 철도건설사업 본격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 기여 -

영남본부(본부장 정재우)는 영남권에 추진중인 7개 철도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신규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전 노선 개통시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으로 영남권 지역주민의 생활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철도건설 투자예산 중 영남권 철도건설 사업비는 총 9,150억원으로 금년 5,976억원 보다 53%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대규모의 철도건설 사업비 투입으로 1조 9,4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1만 5,646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등 전국 반나절 생활권의 확대에 영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생산유발효과 (2.13억원/1억원)	고용창출효과 (17.1명/10억원)	비 고
2012년 효과	19,489억원	15,646명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유발효과(’09기준)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유발계수(’08기준)

우리 지방에 추진되고 있는 철도건설은 경전선 복선전철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이다. 경남권의 경우 경전선 복선전철사업 2,02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1,100억원이 배정돼 금년 2,900억원 보다 8% 증액되었으며, 경북권의 경우는 경부고속2단계 등 6개 노선에 6,030억원이 배정돼 금년 3,076억원 보다 96% 증액되었다.

〈영남권 철도건설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해당사업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11년 사업비	‘12년 사업비	증감
경상남도권	경전선	’02~’12	94.0km	18,361	1,900	2,020	1.06
	부산~울산	’93~’15	65.7km	17,132	1,000	1,100	1.10
	소계			35,493	2,900	3,120	1.08
경상북도권	대구도심	’07~’14	27.1km	15,932	1,505	2,100	1.40
	KTX연결선	’10~’14	3.8km	1,735	251	330	1.31
	대구선	’06~’17	38.6km	8,124	100	300	3.00
	울산~포항	’03~’14	76.5km	23,431	520	2,200	4.23
	포항~삼척	’02~’16	165.8km	28,474	700	1,100	1.57
합	계			77,696	3,076	6,030	1.96
				113,189	5,976	9,150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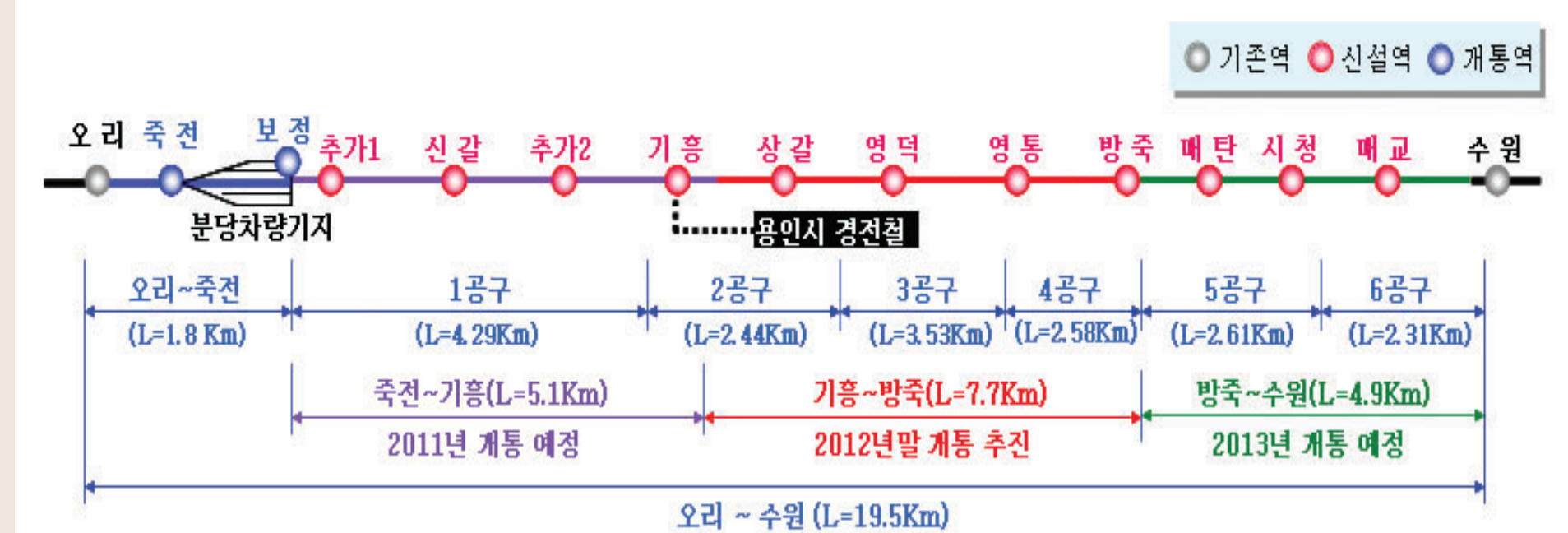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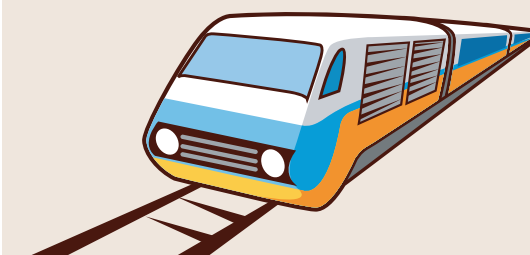
오리~수원 복선전철 중 죽전~기흥구간 12월 우선 개통

- 수원까지는 ‘13년 말 완전 개통 예정 -

공단은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미개통 구간(죽전~수원 17.7km 구간) 중 죽전~기흥 5.1km구간을 2011년 12월 우선개통 한다고 밝혔다.

이태균 광역민자철도처장은 “현재 모든 공사를 마치고 합동시운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남은 기흥~수원구간 중 기흥~방죽구간 12년 말, 방죽~수원구간은 13년 말에 각각 개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19.5km)
- 오리~죽전(1.8km) 구간 ‘07.12.24 개통,
기흥~방죽(7.7km) ‘12.12월, 방죽~수원(4.9km)
‘13.12월 개통 예정



죽전~기흥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선릉에서 죽전까지 운행 중인 분당선과 연결되고 출퇴근 시간에 8분, 평시 12.5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어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의 서울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하루 5만7천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천철교’ 분단 아픔 잊고 새롭게 태어나다

- 폐교각 활용 수익창출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북천철교 준공 전



북천철교 준공 후

강원본부(본부장 이육성) 재산관리운영부는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북천철교 폐교각을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북천철교’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준공하였다.

북천철교는 1930년경 일제가 자원수탈을 위해 원산(안변)~양양간 부설한 동해북부선 철교로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본 철교를 이용하여 군수물자를 운반하자 국군이 함포사격으로 폭파해야만 했던 비운의 역사현장이기도 하다. 이후 60년간 황량하게 방치되었던 교각의 재활용을 통해 2011년 비로서 통일인연을 잇는 ‘평화누리길 북천철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강원본부는 ‘평화누리길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철도용지는 유상 사용허가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철거대상인 폐교각을 무상지원함으로써 철거비 절약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으로 ‘저탄소 녹색철도’를 지향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강원본부는 앞으로도 소관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수익창출과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오창환 기자〉

호남권 6개 철도건설 8,600억원 투입

- ‘12년도 정부 예산안, 2만여명 고용창출 등 효과 -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내년도 호남권철도건설을 위해 8,600억원의 국고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1조 8,3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1만 4,70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분	생산유발효과 (2.13억원/1억원)	고용창출효과 (17.1명/10억원)	비 고
2012년 효과	1조 8,318억원	14,706명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유발효과(’09기준)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유발계수(’08기준)

호남지방에 추진되고 있는 철도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모두 6개 사업이다. 이 중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업은 역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정부는 전년 대비 36.4%가 증가된 예산을 배정했다. 2014년 개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철도공단의 채권발행액까지 합치면 건설사업비는 1조 8,046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현재 오송에서 광주·송정리까지 182.3km 구간, 19개 공구에서 활발히 건설되고 있으며 9월 공정률은 32.1%이다. 내년에는 62.3%까지 공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 ‘12년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 : 1조 8,046억원(국고 7,500억원 + 채권 10,546억원)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 수송을 해결하고 남해안 동서축을 연결하여 영호남의 활발한 교류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사업은 현재 2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50.8%를 투입하여 36.6%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라선과 장항선을 연결하는 익산~대야 복선화사업은 ‘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년 141억

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용지매수와 노반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물류수송을 위해 추진되는 군장산단인입철도 역시 1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용지매수와 본격적인 노반공사 시행할 예정이다.

〈호남권 철도건설 사업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입	정부예산(국고)		비고
				‘11년	‘12년	
합 계				11,071	8,597	%
호남고속철도건설	’06 ~ ’17	104,901	13,878	9,911	7,500	7.1
진주~광양 복선화	’03 ~ ’12	10,749	2,424	1,000	508	4.7
익산~대야 복선전철	’05 ~ ’13	5,143	93	80	141	2.7
군장산단 인입철도	’05 ~ ’13	5,430	123	80	185	3.4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05 ~ ’11	12,979	668	10	77	0.6
동순천~광양 복선화	’01 ~ ’12	4,031	3,430	415	186	4.6

공단,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 1주년 기념 세미나

공단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경철)과 공동으로 개최한 금년 세미나는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가 울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과 지역발전』,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박사가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대한교통학회 고승영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사곤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열린 토론이 이루어졌다.